

2017. 12



암환우와 함께하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En)australianhospice.com.au (Kr)sydneyhospice.com.au • Email:australianhospice@gmail.com • Mob: 0430 370 191 / 0416 758 272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1st ACC Hospice Volunteer Conference, Nov. 20, 2017)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Oct. 30, 2017) (아래 좌)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Nov. 20, 2017) (아래 우)



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34)

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and be freed from your suffering." (Mark 5:34)

월간·통권 4호
(Vol. NO.4)

Address: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2122,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Publisher: Rev. Jang Dae Kim



안환우와 그의 제학을 돕는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

2017

12

C · O · N · T · E · N · T · S

02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를 마치며

06 ACC/SICA 호스피스 활동

07 회계 자료

표지 사진설명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2017. 11. 20)는 1부 예배, 2부 자원봉사자 시상식, 3부 헤세드 힐링 콘서트, 저녁 만찬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자원봉사자 대회를 위하여 윤상수 총영사님의 격려사와 Baptist Care 최고경영자(CEO) Mr. Ross Low의 축하인사가 있었으며 Baptist Care로부터 송정희, 이금귀 봉사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가 있었다. 모든 봉사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암 환우와 그의 가족을 돕는 ACC 호스피스는 교민사회의 어두운 한 구석을 밝히고 가는 작은 빛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환우에게는 치유함이 있고, 봉사자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한 해의 호스피스 사역을 마감하면서 2018년 새해에는 ACC 호스피스 공동체에 속한 83명의 암 환우와 17명의 치매 및 중증 환우, 그리고 18명의 남은 가족들, 그리고 115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린다. 제15차 콘서트에서는 음악에 맞추어 환우와 직원이 함께 춤을 추고, 봉사자들의 손끝에는 내적 치유가 가득한 치유의 쿠키노니아 현장이었다. 제16차 콘서트는 환우 한 분의 감격스러운 간증이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내가 수많은 콘서트를 보았지만 오늘과 같은 콘서트는 처음”이라고, Thanks, Thank you very much.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모든 봉사자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감사 드린다.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대회를 마치며 -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

대표 김장대 목사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살롱! 2017년 11월 20일 아침기도를 마치고 콘서트 장비를 차에 싣고 집을 나서려 하는데 가랑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제16차 콘서트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화창한 날씨를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Eastwood 교회 사무실에서 암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드리는데 11시쯤에 폭우가 쏟아진다.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호스피스의 총 회장이신 예수님께 다시 간곡히 기도를 드렸다. 봉사자가 손수 마련해 오신 풍성한 음식으로 점심을 나누고 오후 1시쯤 콘서트 장소로 출발하려는데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나왔다. 언제 그랬나 듯 신선한 바람과 함께 화창한 날씨가 Marsfield 에 위치한 Southern Cross 너싱 홈을 비춰 주었다. 콘서트는 Flute 을 시작으로 Duet Saxophone, 그리고 Nella Fantasia가 아름다운 음률을 타고 모든 환우와 봉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연이어 천사의 날개 짓 같은 Worship Dance 와 함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한국의 전통 부채춤을 출 때 직원들의 Camera shutter 가 끊이지 않는다. Chroma Harp 연주가 시작되자 환우들은 자신이 즐겨 부르던 음악이 나올 때 함께 부르면서 내적인 치유를 경험한다. Finale 로 모든 봉사자들이 나와서 웃음치료를 하고, 홀로 아리랑을 노래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환우 한 분이 마이크를 달라고 하여 드렸더니, “자신이 수많은 콘서트를 이곳에서 보았지만 오늘 같은 콘서트는 처음”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끊이지 않는다. “Filla”는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를 수없이 반복하였다. 모든 봉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면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제 모든 봉사자들은 오후 4시30분에 시작되는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를 위하여 Eastwood 본회 Office Hall 로 향했다. 한국 교민단체가 주최한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인회의 호주 이민 70여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았으나 가끔 자원봉사교육은 있었지만 자원봉사자 시상식을 하는 대회는 없었다. 이번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대회가 호주 교민단체로서는 최초라는 것을 알고 더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래서 주 시드니대한민국 총영사님과 시드니한인회장님을 초청하여 격려사와 축사를 부탁하였고, 한편으로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Nursing Home 의 중증환우들과 암 환우들에게 다가가서 일년 동안 모든 사역자가 자비량으로 성긴 ACC 호스피스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리로 본 대회가 마련되었다. ACC 호스피스 공동체는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재 대부분 이민1세대로 구성된 봉사자를 앞으로 이민1.5세대와 2세대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섬기는 정신을 고취시키고, 특히 자원봉사자 시상식과 함께 호주의 다문화 사회에서 시드니 동포사회의 두레 공동체정신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의미를 두었다.

1부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Andrew Kim 선교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는 본회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재성 목사님(광영교회)의 성경봉독과 이종권 목사님(동산교회)의 대표 기도, 그리고 김병석 목사님(시드니순복음교회)의 은혜롭고 유창한 영어설교와 함께 최상덕 목사님(호주한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에는 자원봉사자대회를 가지면서 ACC 대표의

편집실_호주호스피스협회

호스피스활동소개를 필두로 시작되었다. 현재 ACC 호스피스 공동체는 1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83명의 암 환우와 17명의 치매 및 중증 환우, 그리고 18명의 남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고 있다. 이어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선서를 하고, 주 시드니대한민국 총영사님께서 보내주신 격려사와 함께 특별히 한국 재외동포재단 과장님이 방문하시어 축하해 주셨다. 자원봉사자 시상은 비밀리에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름이 호명되자 의아해 했다. 이금귀(자연재활치료실 봉사자)님과 송정희(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 리더), 두 봉사자는 일하는 손을 멈추고 단상으로 올랐다. 단상에서는 Baptist Care, Shalom Center 대표 원목님이신 Rev. Ross Cochrane 이 그 동안 매주 Baptist Care, Macquarie 너싱홈을 방문하여 환우들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면서 봉사하신 일들에 감사하여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연이어 Baptist Care 최고경영자(CEO) 이신 Mr. Ross Low 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셨다. Baptist Care 는 시드니에서 제일 큰 너싱홈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이다. 2017년 5월 14 일에 호주호스피스협회(ACC)는 Baptist Care, CEO 이신 Mr. Ross Low 와 호주자원봉사재단(Volunteering Australia)의 최고경영자(CEO), Adrienne Picone OAM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제3부 순서로 헤세드(Checed : 호스피스의 기원) 힐링 콘서트가 언제나 들어도 아름다운 목소리의 'Nella Fantasia', 그리고 부채춤이 나올 때 모든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다. 부채춤 봉사자는 대상포진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듯이,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정성을 우리 봉사자들은 뒤늦게 알게 되어 더욱 가슴이 뭉클했다. 자원봉사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쓰고 남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워 나가는 역동적인 삶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목적인 사람은 직장을 찾고, 성공이 목적인 사람은 신념을 찾는다. 그러나 행복이 목적인 사람은 사명을 찾는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사명자로서 죽음 저편의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연이어 드라마 치료가 시작되었다. 드라마 치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이웃과 함께 "암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으로부터 겪는 우울증을 치료함으로 암을 극복"하는데 한 몫하고 있다. 그리고 Chroma Harp가 연주되자 참석자들도 함께 노래 부르면서 분위기는 고조되었고, 웃음치료를 통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다. 스크린에 비춰진 "홀로 아리랑"의 가사를 참석자 모두가 부르면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녁 만찬을 서로 나누면서 다정다감한 만담이 오고 갔다.

이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면서 '자원봉사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행 20:35)"' 라고 하신 말씀을 섬김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역동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 ACC 호스피스가 섬기는 모든 환우와 그의 가족, 그리고 호스피스 봉사자와 교민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위)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크로마 하프- 회장: 김옥경 지휘: 김진숙)
아래)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3부순서 -콘서트 (부채춤: 김경옥)

(0430 370 191/australianhospice@gmail.com)
(http://www.sydneyhospice@gmail.com(한글)
http://www.australianhospice@gmail.com(영어))

At the end of the first ACC hospice volunteer conference

- Hospice Volunteering: A beautiful part of our life that enables us to enjoy the blessed life here now that we may live in beyond death -

Rev/Dr. Jang Dae (David) Kim

Shalom! November 20, 2017 After finishing the morning prayer, the concert equipment is loaded in the car, and it starts raining when it tries to leave the house. I prayed to God for the sunny weather so that I could proceed well at the 16th concert. At the Eastwood church office, I have an intercessory prayer meeting for cancer. I was worried about the weather because of heavy raining at 11am, but I once again prayed to Jesus, the President of the hospice. We had lunch with the volunteers' handmade food, and we were about to leave for the concert at 1:00 pm. The rain stopped and the sun came out through the clouds. As it was when it rained, the sun was shining through the Southern Cross nesting site in Marsfield with fresh winds. The concert satisfied all attendees. One of the patients testified: "I've seen a lot of concerts here, but this is the first concert today." Filla repeated "Thanks, Thank you God." many times.

All the volunteers were glad to see God's glory in one heart, "A soul gives thanks to God." Everyone glorified God.

All the volunteers now headed to the Eastwood ACC office hall for the first ACC hospice volunteer conference, which starts at 4:30 pm. The conference was held as a place to thank all the ACC hospice volunteers who worked with their own money and time for a year. The ACC Hospice Community, which all workers serve as volunteers, encourages the volunteers of the first generation of immigrants to join with the 1.5th and 2nd generation immigrants in the future. Especially with the volunteer awards ceremony, it is meaningful to spread the spirit of Durea (meaning creating a society that helps each other) community in Australia's multicultural society.

Part 1 gave glory to God in worship. Mr. Andrew Kim has been in charge of presider and has been welcomed by the ACC representative as well as the Bible readings of Rev. Choi Jae-sung (Light ad Salt Church), the representative prayer of Pastor Lee Jong-kwon (Dongsan Church), and the gracious and fluent English preaching of Pastor Kim Bum-seok (Full Gospel Church in Sydney). We finished the worship service together with Rev. Choi, Deok-Duk (Korean Church in in Australia).

In the second part, the volunteer conference started. First, ACC representative introduced hospice activities. Currently, the ACC hospice community has 115 volunteers helping and praying for 83 cancer cases, 17 dementia and severe illness, and 18 remaining families. Subsequently, there was an oath of hospice volunteers, and then with the encouragement from the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ydney, especially Division officer of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in Korea visited and congratulated this conference. Since the volunteer award has chosen the target persons in secret, when their names were called they were working in the hall. They even wondered why they had to go up to the podium. Two volunteers, Lee Keum-Kui (a natural rehabilitation room volunteer) and Song Jung-hee (a leader of beach walk activity with cancer) stopped their working hands and go up to the podium. In the podium, Rev. Ross Cochrane, Baptist Care, Shalom Center congratulated them on their weekly visit to the Baptist Care, Macquarie Nursing home, and gave the certificate of appreciation by thanking them for their service in comforting and sharing joy with the residents. Baptist Care's CEO, Mr. Ross Low congratulated the first ACC hospice volunteer conference and two winners. Baptist Care manages one of the largest nursing homes in Sydney. On May 14, 2017, the Australian Hospice Association (ACC) had already received from the certificate of appreciate from Baptist Care, CEO, Ross Low and the CEO of Volunteering Australia, Adrienne Picone OAM. Baptist Care has special interest and consideration for ACC hospice volunteers.



위)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콘서트" 웃음치료 - 채송아 팀장

아래) 제16차 콘서트에서 "내가 수많은 콘서트를 보았지만 오늘 같은 콘서트는 처음"이라고 간증을 하는 환우 "Filla"

In the third part of the sequence, the Checed (origin of hospice) healing concert began. With the beautiful voice of singer, 'Nella Fantasia' was sung, and when the Korean fan dance came out, all the participants applauded. As the volunteer of the fan dance was suffering from herpes zing, her volunteers became more heartfelt as soon as Maria was pouring the jar into Jesus, knowing her devotion to her best. The volunteer of the fan dance was suffering the shingles, and, all volunteers became more heartfelt through her devotion to her best as the Maria poured the jar to Jesus. God would have been pleased. Our volunteering is not work that we might do if we have spare time and don't if we have no time. Volunteering is not what we give to our neighbours after we spend for ourselves, but it is a dynamic life that shares our most precious things for our neighbours. In order that what we need in our community is filled with many invisible hands. In today's capitalist society, the people who seek money look for a job; the people who seek success look for conviction; however, those who seek happiness look for a mission. We are here today as the people with a mission.

The drama therapy was started in succession. Drama Therapy is not only for itself but also for suffering neighbors, "It is important to find a way to overcome cancer by treating the depression that is caused by cancer. And when the Chroma Harp was played, the attendants were singing together and the atmosphere was heightened and it was time for everyone to come together through laughter therapy. All the participants called the lyrics of "Lonely Arirang" shining on the screen, and it reminded us of the meaning of Korean people. Finally, we shared the dinner with each other by sending 2017. And a friendly conversation came and went.

격려사

호주호스피스협회의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를 축하 드립니다. 이곳 동포사회에는 많은 동포단체들이 있는데, 중에서도 호주호스피스협회는 암환우들을 위한 소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걷기, 찾아가는 음악회, 건강 세미나, 웃음 치료, 가족들간 경험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은 암환우들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라는 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는 암환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공감대를 넓혀갈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암환우들의 도우미이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봉사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공감함으로써 쌍방 향으로 배우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우리 인간관계가 더욱 따뜻해 지는 것입니다.

호주호스피스협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지금은 주로 이민 1세대들로 구성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여 우리 동포사회의 세대를 아우르는 봉사단체로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호주호스피스협회를 이끌면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김장대 목사님과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이번 행사의 성공과 암 환우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 윤상수

DONATIONS

Do not withhold good from those who deserve it, when it is in your power to act. (Proverbs 3:27)

Bank Name: Westpac Bank

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ount Number: 032-069-53-7515

<< ACC/SICA 호스피스 알림 >>

ACC/SICA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할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 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 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SICA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 ACC/SICA 호스피스의 발자취

- 2017.11.20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Baptist Care 로부터 수상자: 송정희, 이금귀)
- 2017.11.20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 2017.10.30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 2017.10.23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공연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 2017.9.25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 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전체 50명 참가 30명 수료(제3기 21명, 제1기 9명))(First Aid (CPR) Training: 29명 자격취득)
- 2017.9.25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 2017.9.2 특별초청강사: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 (Clifton Gardens, 1pm)
- 2017.8.25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 2017.8.14 제13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 2017.8.12 제5차 시드니호스피스회(SICA) 정기총회 및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시드니호스피스회(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SICA, ABN 87 157 916 417)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쇄하기로 함. 호주 호스피스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에 기증 함."Committee"의 한글명칭을 "상임운영이사회" 로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 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정대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 (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 (Audit): 조철호
- 2017.7.10 제12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 2017.6.12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와 협약체결 (MOU)
- 2017.6.5 제11 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 2017.5.8 제10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oida Court, Baptist Care)
- 2017.4.25 제2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대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4.27
- 2017.4.10 제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The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 2017.3.20 제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Meredith House Nursing Home)
- 2017.2.20 제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Woodlands Nursing Home)
- 2017.1.20 제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Estia Health Nursing Home)
- 2017.1.9 ACC Home Page 개설(www.australianhospice.com.au)(영문홈피)
- 2016.12.31 제1회 호스피스 어머니 시상식 (수상자: 이금귀, 장지수, 장정옥) (ACC/SICA 공동 주최)
- 2016.12.22 제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Baptist Care,ShalomCentre) (성탄축하연예예배:ACC-Baptist Care)
- 2016.11.30 제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Summer Hill Nursing Home) (ACC/SICA 공동주최)
- 2016.9.26 제1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전체 24명 참가 ~10.6
특별초청강사: 전재규(대구동산병원 의사/한국호스피스협회 설립자/분회 고문)
김경환(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15년경력)
- 2016.9.28 제3차 추수감사주간 음악회(Baptist Care, DHL Centre) (ACC/SICA 공동주최)

- 2016.8.20 제4차 정기총회(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3시) 결의사항: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ACC) (호주 호스피스 협회) 설립(INC1601021): 시드니 호스피스(SICA)는 제8차 Committee에서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 를 설립하기로 의결하였고, 호주 전역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넓히고자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설립을 총회에서 추진 함.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초대 임원(Committee Member) 선임: Chairperson/Public Officer(대표): 김정대 Treasurer(재정): 송정희, Secretary(총무): 성순자, Audit(감사): 조철호
- 2016.5.9 제2차 어버이 주간 음악회(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6.1.1 SICA Home Page 개설(www.sydneyhospice.com.au)
- 2015.12.28 제1차 성탄 송년 음악회 (Baptist Care Shalom Centre)
- 2015.10.24 제3차 정기총회 (장소:모지식당(Strathfield) 오후 3시 30분) 결의사항: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 에 대한 정확한 한글 명칭이 없이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라는 명칭으로 사용 되어 조직운영에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제3차 정기총회 이후 한글명칭 "이사회"는 해산되고 정관에 명시된 "Committee" 라는 영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Committee Member 를 받기로 함. 별칭으로 AICA (Australia Institute of Cancer Aid)를 사용하기로 함.
- 2015.9.30 대구 동산병원 호스피스회와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9.25 부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상호교류협약 체결(MOU) (김장대 목사 대표 자격으로 한국방문 협약체결)
- 2015.8.10 사무실 이전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 2015.8.8 제2차 임시총회(장소:모지식당, 의제:김장대목사 대표선임) (대표:Chairperson, Public Officer): 김장대목사 선임, 96% 찬성)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 방문도 가능합니다.
[정기상담] • 일시: 월, 화, 수요일 10:00~16:00
• 장소: 본회 사무실
• 문의: 0430 370 191 / 0416 758 272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헤세드 힐링 자원봉사자 모집

- 암 환우의 회복과 심리치유를 위하여, 그리고 너스훈 환우들과 기쁨을 함께하는 음악 재능 봉사자와 드라마를 통하여 환우들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나누고자 드라마 재능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연락처 0430 370 191/0416 758 272

◎ ACC/SICA 호스피스와 해외 협력기관

- 부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한민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거리 박사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독교 병원)
- 대구 동산 호스피스회 (1899년에 미국 선교사 존슨 의사에 의해 제중원(濟衆院)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대구 최초의 근대병원)
-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랑을 치유하라" 뜻 고집 절벽은 없다. 다만 뜻 고집 사람이 있을 뿐이다")

◎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 대상: 암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장소: Circular Quay 3번 부두
- 준비물: 도시락, 물
- 연락: 0405 317 843(송정희 리더)/ 0430 370 191

◎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 장소: The Gracewood Aged Care, Baptist Care, 2 Free Settlers Drive, Kellyville NSW 2155
- 일시: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소식지 ACC 회계자료 (10 / 2017)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Dong san church	2000	Donation	통신비	69.35	Vodafone
이종욱 교수님	700	Donation	인쇄 홍보 비	527.5	소식지 275 +소식지 발송 52.5+ 홈페이지 연장비 200
Kyung Tae Kim	20	MEMBERSHIP FEE(9 월분)	차량유지비	79	
김민규	10	MEMBERSHIP FEE(9 월분)	관리비	590	9 월 110+10 월 110+ first aid 교육장소 185+ 자원봉사자대회장소 선불 185
Harp group	50	MEMBERSHIP FEE(9 월분)	식대 및 부식비	240	꽃구경김밥 165+월요김밥 75
Yoon Sub Chung. Jang	300	Donation (9 월분)	경조비	100	
Young Do Byun	50		행사 및 세미나	153.79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367.24	3 기교육 사무용품 70.74+86.5+토너 210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회계사. 변호사	0	
Elhis Kim	10	MEMBERSHIP FEE	보험료	0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water	0	
Chang Keun Lee. Ji Haeng	100	Donation	First aid	1938	3 기교육 Nab 9/10/2017
In Hee Lee	30	MEMBERSHIP FEE	Total	4064.88	
Duk Soon Jang	20	MEMBERSHIP FEE			
Jong Soon Kim	100	Donation			
Jeung Bun Kang	50	Donation			
GNA Support GNA SOLUTIONS PT	100	은 Donation			
INTEREST PAID	0.14	ACC Westpac			
	3770.14				
*SICA Donation					
Sydney light and salt	300				

●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 입금 계좌명 및 계좌번호

후원 계좌명(Account Nam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Bank	BSB No.	Account No.
Westpac	032-069	537515
NAB	082-451	68-612-2677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주요 활동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 가족을 섬깁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드립니다.
 - 암환우의 회복에는 심리치유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하여 암환우와 함께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우와 가족들을 즐겁게하여드립니다.
3. 암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환우와 함께 바닷가 걸기를 실시함으로 연약한 암환우의 건강이 회복되며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는 되는데 기여합니다.
 - 암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걸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봉사정신을 고취시키고 교민 사회에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와 성경적 의학 교육
 - 약한 자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 교육으로 실시합니다.
5. ACC/SICA 홍보활동
 - ACC/SICA 활동의 홍보는 정성어린 교인들의 기부금과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하여 이뤄 지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란 명칭으로 월간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 암환우에게 새소망을 주고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년 1회이상 특별 공연을 실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을 지지해드립니다.
 - 형편에 따라 겸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도와 드립니다.
 - 환우가 떠난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위) 제15차 콘서트(기타 음악에 맞추어 환우와 함께 춤추는 직원)



위) 제1회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Baptist Care 로 부터 감사장을 수상하는 이금귀, 송정희 봉사자

ACC-SICA
 Australian Cancer Care Inc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 ◎ 발 행 처: ACC/SICA 호스피스 협회
- 비영리 단체등록법인(ACNC): ACC(ABN:17 110 189 115)
- 주소(Add.): PO BOX 615 Lidcombe, NSW 1825
- Mob: 0430 370 191, 0416 758 272
- E-mail: australianhospice@gmail.com or sydneyhospice@gmail.com
- Web: [www.australianhospice.com.au\(Eng\)](http://www.australianhospice.com.au(Eng)) / [www.sydneyhospice.com.au\(Kor\)](http://www.sydneyhospice.com.au(Kor))
- 발행날짜(Date of Issue): 2017년 11월 27일
- 발행(Publication)/편집(Edition): 김장대(Rev. David Kim)
- 인쇄(Printing): JC 우리인쇄소